

김종 전 차관, 최순실 행동대장

체육계 바로잡겠다 행한 비정상화의 정상화 위한 일들 최순실 일가 '사리사욕' 채우기 위한 비정상적 극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이 체육계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체육계를 쥐락펴락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기에 가능했다.

현 정부 들어 체육계를 바로잡겠다며 행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일들이 결국은 최순실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정상적 극치였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9월 취임한 이후 사퇴하기 전까지 무려 3년간 재임하며 '체육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체육계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4대악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존 체육인들을 비리 집단이나 부패의 온상으로 취급하는 등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신하 기관의 요직에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며 조직을 휘하에 두렷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대회조직위 위원장이 3차례나 바뀐 배경에 김 전 차관이 있다.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조직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과 평소 마찰을 빚었고 일반적으로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양호 회장이 최순실씨가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한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를 거부하자 조직위원장에서 해임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조 회장은 2년 가까이 평창 조직위를 이끌며 지난 5월 3일 "한진해운 경영 정상화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런 사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오랜 기간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육인 역량향상과 교육에 집중해온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해체한 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편입시켰다.

당시 체육인재육성재단은 해체에 반대하던 버텼지만 결국 정리가 됐다. 문제는 이후 체육인재육성재단이 해체된 올해 1월 K스포츠재단이 설립됐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해오던 사업 대부분은 K스포츠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했다.

"김 전 차관이 신하 조직은 물론 체육



계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체육계에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최순실씨의 행동대장격이었던 셈이다.

김 전 차관의 전횡은 이번 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제주전국체전에서 대회 직전 승마 종목만 제주가 아닌 인천으로 경기장이 변경됐다.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승마협회에 경기장 변경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번에도 김 전 차관이 움직이면서 성사됐다.

문체부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K스포츠클럽 정책도 재검토에 들어간 시점에서 K스포츠재단이 생활체육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K스포츠재단에 맡겨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뉴시스



전북체육회, 재능기부 사업 참가자들 '호응'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희진)가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문화 조성 및 학교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재능기부 사업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주생령과학고 배드민턴 선수들은 지난 2일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기초 및 실기 시범을 선보이고 1:1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 도 체육회는 지난해 사격과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서 도내 12개 팀 코치와 선수 61명이 12개 학교 762명에게 재능기부 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컬링, 씨름, 육상, 태권도, 체조 등 다양한 종목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펼쳐 종목별 시범과 체험활동 및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종목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은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종목으로 확대하며 도민들과 더욱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FA컵 우승팀, 내달 3일 가려진다

올해 FA컵 우승팀의 행방이 12월3일 가려진다.

대한축구협회는 FC서울과 수원 삼성의 맞대결로 압축된 2016 KEB하나은행 FA컵 결승전이 11월27일(1차전)과 12월3일(2차전) 열린다고 3일 밝혔다.

홈 앤드 어웨이로 치러지는 결승전의 1차전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2차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두 경기 모두 킥오프 시간은 오후 2시다.

대한축구협회 김진항 경기운영실장은 FA컵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월드컵 최종예선으로 인해 대표팀이 15일까지 소집되는 데다 19일에는 전북 현대가 출전하는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다. 또 20일에는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가 열린다'면서 "아시아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와 승격, 강등팀이 결정되는 K리그 경기를 배려하고 팬들의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FIFA, 한국전에서 종교 행동 이란 벌금 5200만원

이란이 한국전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에 벌금을 물게 됐다.

영국 BBC는 4일(한국시간) FIFA가 이란에 벌금 3만7000파운드(약 52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FIFA는 지난달 12일 테헤란의 아자디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 한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을 문제 삼았다.

당시 경기장을 찾은 10만명에 가까운 이란팬들은 이슬람 사야피의 추모인인 타슈이를 맞아 짙은 색 옷을 입고 종교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경기 전에도 아자디스타디움 인근에서 타슈이와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진행했다.

FIFA는 당시 이란팬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란 축구협회에 벌금을 내라고 지시했다.

/김민근기자

“난 맹세코 최순실-최순득 얼굴 조차 모른다”

이승철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가수 이승철이 '최순실·최순득 게이트' 관련 루머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진엔원뮤직웍스는 3일 "최순실, 최순득이라는 사람은 맹세코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다며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언니이자 또 다른 실세로 알려진 장시호(장유진) 씨 모친인 최순득 씨가 연예인 모임인 '회오리 축구단'과 친분이 있다는 설이 나돌면서 이승철의 이름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축구단에 몸담은 대표적인 연예인으로 그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다.

진엔원뮤직웍스는 "이승철이 축구를 그만 둔 게 15년이 넘어가는데, 과거 그곳을 거쳐갔다는 이유만으로 거명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이자, 모욕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다. 이어 "지난 30년간 거기를 거쳐간 모든 연예인들이 차라리 최순득, 최순실의 특혜를 받았다고 말할까요? 얼마나 지나친 과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승철이 2014년 소치 올림픽 폐막식과 UN DH 컨퍼런스 등 국가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도 최씨 일가에서 비롯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진엔원뮤직웍스 관계자는 "소치올림픽 폐막식에 나간 한국 가수는 500, 나 00, 양00 그리고 저희 소속 이승철인데, 이 네 가수가 모두 그러면 최순실 게이트에 연결됐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역을 해했다.

또 "2014년 2월 소치올림픽 폐막식은 당시 섭외회사 현00에서 공식 섭외가 온 것이다. 당시 평상시 국가를 위해 영광스런 일이라 여겨 섭외를 받아들였다"고 해

명했다. UN DH 컨퍼런스 참석에 대해서는 "탈북 합창단이 자신들을 이끌어달라고 저희를 찾아오면서 합창단을 맡았고 당시 모든 사비를 털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후 탈북합창단의 사연을 접하면서 이들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UN에 직접 글을 보내 스스로 어렵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 역시 투명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영어에 능숙했던 이승철의 아내가 직접 유엔 공보국 당사자의 접촉점을 파악한 후, 영문 전화와 영문 e-메일을 보내는 등 출연 의사를 타진해 수개월 간 힘겨웠던 절차 거쳐 이뤄낸 일"이라고 부연했다.

진엔원뮤직웍스 관계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울러 저희와 관련해 느닷없이 생긴 터무니없고 잘못된 루머와 소문도 꼭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법률적인



가수 이승철이 '최순실·최순득 게이트' 관련 루머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책임에 대한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